

## 한·일클럽챔피언십 통해 성숙해진 두 호랑이



&lt;양현종&gt;



&lt;곽정철&gt;

# 양현종 '호투' 자신감 쑥쑥 곽정철 '악투' 자만은 금물

요미우리 사이언스와의 한·일클럽챔피언십을 끝으로 KIA 타이거즈의 2009년도 끝이 났다.

시즌은 끝났지만 여전히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투수들이 있다. 요미우리 하라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은 양현종과 역적이 되어버린 곽정철이다.

양현종은 초회화 군단 요미우리와의 대결에서 선발로 나서 5회3분의 2이닝동안 3개의 안타만을 내주며 거인들을 꿩쳤다. 삼진은 6개를 뽑아냈다. 오가사와라, 아베 등 요미우리 간판 선수들이 줄줄이 삼진으로 돌아섰다. 오가사와라에게 허용한 솔로 홈런이 유일한 실점. 불펜진의 난조로 승리를 날렸지만 상대의 간답을 서늘하게 한 피칭이었다.

정상 전력이었다면 선발은 양현종의 몫이 아니었다. 지난 10월에는 신종플루 확진 판정까지 받았다. 입원 치료를 하며 증세가 호전됐지만 웨이트 훈련 등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체 선발이 마땅 않았고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

양현종이 경기보다 걱정했던 것은 공항 열 감지기였다. 열 감지기에 걸려 비행 기에 오르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양현종은

은 겸색대를 통과한 뒤 “혹시나 해서 걱정을 했는데 무사히 통과했다”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었다.

우여곡절에 선발의 영예를 안은 만큼 경기가 끝난 후 양현종의 표정은 무거웠다. 하지만 “요미우리는 이를만 생각하고 상대 했다면 주눅들었겠지만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했다”며 “결과는 졌지만 이기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고 집중하기 때문에 과정에서는 이겼다”고 당당했다.

그러나 끝까지 씩씩했던 양현종은 이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하고 끝내 눈물을 보였다. 가족들이 큰 대회를 앞둔 양현종을 생각해 뒤늦게 소식을 알려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양현종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할아버지를 추모하는 글을 올려 팬들을 울렸다.

곽정철도 양현종 못지 않은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상황은 정반대다.

곽정철은 3-1로 앞선 7회초 구원등판해 아래에 역전 스피커리를 허용하는 등 3분의 2이닝동안 3피안타(1피홈런) 2볼넷 5실점으로 무너졌다.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돼 팀은 4-9로 역전패 당했다.

조범현 감독은 파워있는 아베와의 ‘힘과

힘’의 대결을 위해 곽정철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동료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개를 들 수 없었다는 곽정철은 믿고 기회를 준 조 감독에게 여전히 죄송스럽다.

곽정철은 “흘린 맛는 순간 뺨을 얹어맞은 기분이었다”며 “자만하지 말라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사실 곽정철도 정상적인 몸상태는 아니었다. 출국 전날 고열과 기침에 시달렸던 곽정철은 설사증세까지 보였다. 최선을 다했지만 곽정철의 힘을 보여주기엔 역부족이었다. 곽정철은 극복 후 구단 버스로 이동한 선수단과 동행하지 않고 비행기 편으로 따로 광주로 내려왔다. 곧장 병원에 입원한 곽정철은 신종플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곽정철은 “팬들에게 육을 먹을 만큼 내 자신이 부족했고, 못했다”며 “따끔한 충고와 비판을 잘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내 이름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 ‘곽정철’이라는 이름으로 팬들을 다시 웃게 하겠다는 설립이다.

입장은 정반대이지만 양현종과 곽정철은 개인과의 대결을 통해 한 뺨 더 자랐다.

리기 위해 마운드로 향했다.

이 코치는 “이기는 상황에서 원포인트 교체를 하려 가는 것도 아니고, 지는 상황에서 마운드 올라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다”고 밝혔다.

이 코치에게 선수들은 많은 걸 가르쳐야 할 제자들이지만 귀여운 후배들이기도 하다.

이 코치는 “경기전에는 서로 던지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선수들이었는데 막상 그라운드에 올려 놓고 보니 긴장을 많이 하더라”면서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팀 지고 있어 마운드 가는 길 멀기만...”

## 첫 데뷔전 치른 이강철 투수코치

“데뷔전 치고는 너무 많이 등장했어...”

14일 요미우리와의 경기를 통해 마운드에 데뷔한 이강철 코치의 소감이다.

간베 코치가 사임하면서 이번 대회에는 이 코치가 투수코치로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당연히 투수교체를 위해 마운드에 올라가는 일도 이 코치의 몫이었다.

6회초 선발 양현종을 손영민과 교체하기 위해 올라간 게 첫 등장이었다. 7회에는 마운드가 끊도록 걸음을 해야 했다.

흔들리는 손영민을 안정 시키기 위해 두 번째 걸음을 했던 이 코치는 손영민을 교체하기 위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믿었던 곽정철 마지막 흔들리자 정용운을 올

리기 위해 마운드로 향했다.

이 코치에게 선수들은 많은 걸 가르쳐야 할 제자들이지만 귀여운 후배들이기도 하다.

이 코치는 “경기전에는 서로 던지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선수들이었는데 막상 그라운드에 올려 놓고 보니 긴장을 많이 하더라”면서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다산공인증개사

**HOMECON** 홈컨 不動產 리서치

TEL: 062-233-2222 H.P: 010-3616-8698

##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 ■ 지역 : 전남·북, 기타지역

## ■ 용량 : 100KW이상~ 무제한

## ■ 조건 : 민원해결

## 개발행위허가

## 발전사업허가

## 완료된 곳

## 正心 正視 正行

명당 공인증개사 062)431-2834.  
(H.P) 010-6460-2834

▶전남 나주시 영신동

- 네이버 과수밭 수령 17년 430주  
- 창고 30평, 도로 5평 양호

▶전주 광주 구 용곡동

담 55평, 창고 5평

- 도로, 투자처 양호

▶전남 나주시 풍정면

- 대형 창고 100평, 창고 5평

▶전남 광주 구 용곡리

전 40평, 농지 10평

▶전남 나주시 풍정면

임 100평, 창고 10평

▶전남 나주시 풍정면

</